

한국, 독일 2점차 꺾고 스웨덴이 지면 16강 간다



23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노두 로스토프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 1-2로 패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돈의 F조' 16강 경우의 수

'2패' 한국 승점 없이 최하위 ... 골 득실 '-2' 27일 오후 11시 최후의 승부서 16강 판가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혼돈의 F조'가 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 러시아 로스토프나노두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 1-2패를 기록했다. 앞서 스웨덴에 0-1로 졌던 한국은 승점 1점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F조 최하위로 처졌다. 그렇다고 한국의 16강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날 열린 또 다른 F조 경기에서 독일이 스웨덴에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겨겨가던 한국의 16강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멕시코가 2연승(승점 6)으로 16강 8부 능선을 넘었고, 독일과 스웨덴이 각각 승점 3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승점 없는 한국의 '16강 경우의 수'는 '독일전 2점 차 이상의 승리+스웨덴의 패배'다. 한국은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조건 승점 3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꺾어야, 한국이 골 득실과 다득점을 따져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번 대회에서 승점이 같은 팀은 골 득실에 이어 다득점을 비교해 순위를 가린다. 2차전까지 한국은 1득점 3실점(-2),

독일과 스웨덴은 2득점 2실점(0)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이 마지막 독일전에서 승점 3점을 챙기고, 스웨덴이 멕시코에 지면 세 팀은 모두 1승 2패가 된다. 이럴 경우 한국이 골 득실차에서 -2로 뒤지고 있는 만큼 2점 차이로 승리를 해야 독일과 스웨덴을 누르며 된다. F조 4팀은 27일 오후 11시 동시에 복잡한 경우의 수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혼돈의 F조' 순위 싸움이다. 실낱같은 16강 가능성을 남겨놓은 신태용호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앞서 두 경기에서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독일은 지난 대회 챔피언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의

강하다. FIFA 랭킹 57위의 한국은 1위를 상대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한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바로 2점 차 이상의 승리다.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 독일은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43골을 쏟아부었고, 실점은 단 4점으로 막으며 10전 전승으로 우승 후보로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역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상대 전적에서도 독일은 한국에 2승 1패로 앞서 있다. 월드컵 본선에서도 독일이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3-2로 이겼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준결승에서는 1-0으로 한국의 결승 진출을 저지했다. 발동에 불이 떨어진 독일과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가보겠다는 한국의 필사적인 승부가 예고된다.

'부상'이 최종전의 변수로 떠올랐다. 독일의 주전 중앙 수비수 마츠 후멜스(바이에른 뮌헨)가 지난 21일 팀 훈련 도중 목을 다쳐 전력에서 제외됐다. 또 미드필드 제바스티안 루디(바이에른 뮌헨)는 스웨덴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발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여기에 제롬 보야텡(바이에른 뮌헨)이 스웨덴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한국전에 나서지 못한다. '부상 악몽'에 시달려왔던 한국도 부상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박주호(울산)가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고, 멕시코전에서는 '캡틴' 기성용이 왼쪽 종아리를 다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미안하다"

"독일전 죽기 살기로 ... 국민께 희망 드릴 것"

멕시코전을 마친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은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24일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멕시코전이 손흥민의 만회골에도 한국의 1-2 패배로 끝난 후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다. 경기 후 눈이 부은 채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 나온 손흥민은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도 "많이 미안하다. 초반에 찬스 왔을 때 공격수 입장에서 잘 해줬어야 했다. 찬스 왔을 때 해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반 추가시간 1점을 만회해 낸 손흥민은 종료 휘슬이 울린 후 그라운드를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일으켜 세웠다. 손흥민은 "(기)성용이 형이 중앙으로 모여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해줬고 나도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우리 정말 노력했으니

고개 들고서 그런 말을 했다"고 말했다. 힘겹게 참았지만 손흥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나보다 어린 선수들도 있고 위로 해줘야 하는 위치라 내가 눈물을 보여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은 모습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내가 어릴 때 그만큼 잘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성용이 형한테는 많이 죄송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성용이 형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눠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님께서 많이 위로해주시고 선수들 잘했다고, 다음 경기 잘하자고 말씀해주셨다. 선수들도 조금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비난의 중심에 선 수비수들에 대해서도 미안함과 아쉬움을 표현했다. 손흥민은 "잘해보려다 보니 실수도 나오고 그런 것 같다. (장)현수 형 같은 경우도 그게 또 현수 형이었다는 게 미안하다"며 "수비수들 고맙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두 번째 월드컵에 오기 전 '월드컵은 정말 무서운 무대'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는 "아직도 무섭다"며 "진짜 잘 준비해도 부족한 게 월드컵 무대다.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4년 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똑같은 말을 할 것 같다. 아직도 겁이 난다"고 고백했다. 또 "선수들이 실망하고 자신감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며 "16강 가고 못 가고 떠나서 마지막 경기에 선수들이 잘 임해주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신태용호 '장현수 딜레마'

1·2차전 잇단 실수에 '여론 못매' ... 3차전 기용 고민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벼랑 끝에서 위태로운 신태용호가 '장현수 딜레마'에 빠졌다. 수비 조직력을 생각하면 함부로 장현수(FC도쿄)를 포백 라인에서 빼는 게 축구 대표팀에는 부담스럽지만 조별리그 1·2차전 동안 보여준 아쉬운 결과와 그에 따른 여론의 못매를 생각하면 3차전에 내보내는 게 장현수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다. 장현수는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신태용호에서 팬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선수다. 장현수를 향한 팬들의 비난은 지난 18일 치러진 스웨덴과 조별리그 1차전 2차전에서 실점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 장현수는 전반 23분께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멕시코의 안드레스 그라다도의 크로스를 막으려고 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내줬다. <사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장현수는 후반 21분 역수 상황에서 멕시코의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선부터 태클 실패로 오히려 더 좋은 슈팅 기회를 내주고 말았다. /연합뉴스



방송 해설위원들도 장현수의 4클레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표팀 수비수 출신인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태클은 확실하거나 불을 확실하게 터치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며 "장현수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태클을 해서 안 되는 장면이었다"고 지적했고, 안정환 MBC 해설위원도 "공격수가 슈팅도 하기 전에 태클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결국 장현수는 경기 끝난 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고, 대표팀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믹스트존 통과 대신 다른 통로로 경기장을 빠져나가게 했다. 1·2차전을 통해 장현수의 멘탈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신태용 감독 역시 독일과 3차전을 앞두고 장현수를 계속 기용해야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연합뉴스

팀도 ... 메시도 어찌면 마지막 '벼랑끝' 아르헨 3차전 출격

리오넬 메시가 오는 27일(한국시간)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월드컵 경기에 출격한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27일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나이지리아와 격돌한다. 아르헨티나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1무 1패(승점 1)로 크로아티아(2승-승점 6), 나이지리아(1승 1패-승점 3), 아이슬란드(1무 1패-승점 1)에 밀려 D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월드컵의 단골 우승후보인 아르헨티나에 치욕적인 성적이다. 하지만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르헨티나가 27일 나이지리아를 꺾으면 16강 진출 길이 열린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23일 아이슬란드를 제압해 아르헨티나에 희망을 줬다. 이제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메시에게는 더욱 중요한 경기다. 메시는 아이슬란드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크로아티아전에서도 침묵해 자신감을 구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 전부터 31세인 메시가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대회 부진으로 메시의 은퇴 여부는 더욱 확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 던진 태극전사' 파울 47개 1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파울을 저지른 팀은 바로 한국이다. 18일 스웨덴과 F조 1차전에서 파울 23개를 기록했던 한국은 24일 멕시코와 2차전에서는 24개의 파울로 상대 공격 흐름을 끊었다. 파울 24개는 이제까지 열린 조별리그 29경기 가운데 한 팀이 범한 최다 파울이다.

한국의 2경기 누적 47개의 파울 역시 32개 본선 진출국 가운데 가장 많다. 한국의 뒤를 모로코(45개)가 2개 차로 따라가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는 43개의 파울로 3번째로 많다. 경기당 평균 20개의 파울을 기록한 건 이들 3개 국가가 전부다. 한국은 육탄 공세를 펼쳤지만, 스웨덴(0-1)과 멕시코(1-2)에 내리 두 판을 저

2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였다. 특히 멕시코와 경기는 총성 없는 전쟁 그 자체였다. 한국은 파상공세를 펼친 멕시코를 상대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냈다. 스웨덴과 경기에서 유효슈팅 0개의 골욕을 당했지만, 멕시코전에서는 슈팅 17개에 유효슈팅 6개로 선전했다. 수비수들은 몸을 던져 멕시코의 공격을 차단했다. 24개의 파울 중 옐로카드를 4개였고, 퇴장은 피했다. /연합뉴스